

# 한우 사육동향 분석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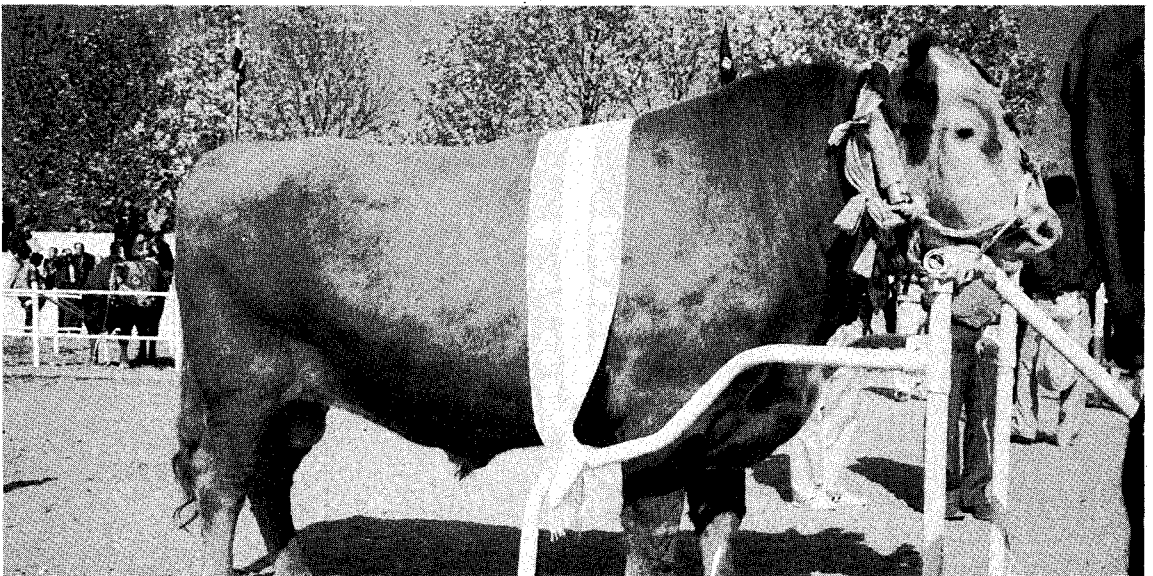
## 1. 머리말

금년초 “소 사육동향 분석 및 전망”이란 제목의 필자 원고가 수 개의 축산관련 전문지에 게재된바 있는데 동원고내용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격려와 우려의 평을 들은바 있다.

지난 3월에 가축통계조사 결과치가 공표되었고, 양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국과 미국, 한국과 호주간의 쇠고기에 관한 쌍무협상이 3월 21일과 4월 25일에 타결되어 쇠고기 수입한도량이 금년도 58천톤, '91년도 62천톤, '92년도 66천톤으로 결정되었으나 국내 소값의 급속한 상승으로 금년도 쇠고기 수입량을 10천톤이 추가된 68천톤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었으며, 5월초에 모 축산전문지에서 “국내에 한우씨가 말라 간다”는 제목하의 특집을 마련하여 한우 사육기반붕괴를 우려하는 양축가의 여론과함께 정부의 한우 및 쇠고기 관련시책

정진국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개량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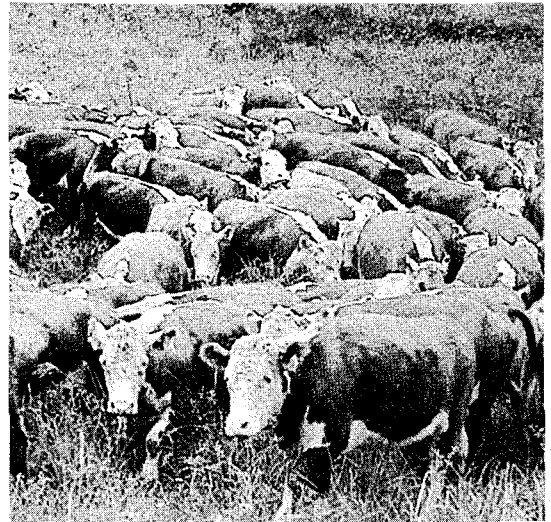
의 재고(再考)를 촉구하는 기사가 게재된바 있어 지난 1/4분기까지의 소 사육동향분석치를 토대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 2. 최근의 한우사육 동향

### 가. 소값 및 사육두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값은 바닥세었던 '86년대비 큰소가 약2배, 송아지가 3.5배 정도. 지난 12월대비로는 큰소가 15%내외, 송아지가 20%내외를 상승하였으며, 사육두수는 '86년말대비 63%, 지난 12월대비 97%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 전반적으로 암소가격이 숫소보다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감소율도 암소가 숫소보다 낮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축가와 대화를 하다보면 소 사육두수 조사방법이 전수조사(全數調査)가 아닌 표본조사(標本調査)인데 사육두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표본조사 방식은 전수조사시 많은 조사요원이 동원되는데 따른 비용절감과 요원들의 전문성 저하 및 이들에 의한 오차증가 방지를 위하여 통계전문가들에 의하여 개발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은 통계조사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도지사가 지방축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6월과 12월에 전수조사하고 있는 소 사육두수와 비교하여 불때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만 될 것이다. 또한 농가의 많은 축사가 비어있고, 가축시장 출하두수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듣게되는데 사육두수가 사상 최고두수였던 '85년도의 2,554천두에서 1,486천두로 42%가 감소되었으며 소값상승으로 농가의 출하기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를 감안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로서 과거 과잉사육으로 소 사육두수가 넘쳐 흐를 때와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1) 소값 및 한우사육 동향

※ 금년도 한우 사육두수는 3월현재 두수임.

		'85	'86(A)	'87	'88	'89(B)	'90.5(C)	대 비	
								C/A	C/B
소 값	큰 숫 소	1,105천원	995	1,104	1,404	1,734	2,063	207%	119
	큰 암 소	973	827	857	1,210	1,580	1,784	216	113
	숫송아지	444	376	464	652	1,022	1,238	329	121
	암송아지	355	224	285	445	747	863	385	119
사 육 두 수	총 두 수	2,554천두	2,370	1,923	1,559	1,536	1,486	63	97
	(암 소)	1,775	1,575	1,294	1,058	1,052	1,037	66	99
	(숫 소)	779	795	629	501	484	449	56	93
	가입암소수	1,200	1,030	872	728	729	725	70	99

## 나. 번식관련 동향

〈표2〉에서 보는바와같이 감소지표인 숫소도축율만이 높아지고 있을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표들 모두가 사육두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금년도 1/4분기('89. 12~'90. 2)에 숫소도축율이 증가한 것은 연말·년시 및 설의 쇠고기 수요 성수기에 암소출하가 덜되는데 따른 반사작용으로 숫소가 더 많이 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암소도축율이 저하할 경우 숫소도축율도 함께 저하되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금후 숫소도축율은 서서히 저하되면서 대신에 비육기간이 길어지고 도축체중의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표2〉의 번식관련지표들에 대하여도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첫째 : 암소비육농가의 경우 증체효과를 높이고 집단관리를 위하여는 인공수정이 불가피한데 이들 실적도 포함되어 인공수정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이들 실적을 제외한다면 실제 송아지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비율은 훨씬 낮으며 오히려 점차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 현실적으로 비육위주의 암소가 사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번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설득력이 있느냐?

셋째 : 밀도살 등 부정도축이 성행되고 있는데 부정도축된 두수가 포함되지않은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허가, 도축된 통계만으로 작성된 도축율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등의 의문이다.

이들 의문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 암소에 대한 도축년령제한 조치가 '84년 12월에 해제되고 이후 소값이 크게 하락하여 번식의욕이 저하됨으로서 암소비육이 성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암송아지의 중암소 전입비율이 '88년도에 36.1%까지 내려간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인공수정실적에 송아지 생산의사가 없는 비육농가의 인공수정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85년 이후 조사집계된 때 년도의 인공수정실적에 비육농가의 인공수정실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수정비율의 변화추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암송아지의 중암소 전입비율이 '88년도를 최저로 점차 증가되고 있어 암소비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따라서 비육농가의 인공수정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오히려 송아지생산을 목적으로하는 인공수정비율이 '89년도부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표 2〉 한우 번식관련지표 동향

		'86	'87	'88	'89	1/4분기		
						'89	'90	증 감
증 식 지 표	총두수 중 암소비율	66.5%	67.3	67.8	68.5	68.8	69.8	1.0
	총두수중 가임암소비율	43.5	45.4	46.7	47.5	47.2	48.8	1.6
	년초 암소수대비 인공수정비율	45.9	50.3	57.9	69.6	12.4	16.3	3.9
	년초 가임암소대비 번식율	61.8	41.8	42.0	52.3	8.7	10.0	1.3
감 소 지 표	암송아지의 중암소 전입비율	59.9	43.6	36.1	44.9	38.9	43.9	5.0
	년초수대비 도축율(암소)	28.2	26.2	27.4	16.7	5.0	4.1	△0.9
	"          (숫소)	65.0	68.5	73.5	63.5	15.7	20.0	4.3
	도축두수중 암소점유율	54.5	48.3	49.9	43.1	47.3	38.6	△8.7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 : 금년 3월 현재 암송아지의 중암소 전입비율이 43.9%로서 송아지시기의 폐사율을 감안한다하더라도 50% 이상이 중암소시기에 도축되고 있다는 것은 암소비육이 매우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식율의 계산은 년초의 원고에서도 밤헌바와 같이 년말두수, 도축두수, 폐사두수, 수출두수를 합한 두수에서 년초두수, 수입두수, 젖소숫소 전입두수를 빼서 송아지생산두수를 추정하고 이를 년초의 가임 암소두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생산된 이후의 비육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출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 밀도살 등 부정도축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바 이의 방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제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축산인 모두가 인정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부정도축두수는 현재는 물론 과거의 모든 도축통계에서도 빠져있는 상태로서 동일한 기준하에서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였고, 암소에 대한 연령제한 및 숫소에 대한 체중제한 등의 도축제한조치들이 '84년도 12월부터 해제 됨으로서 부정도축의 소지가 줄어들어 도축통계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때 도축율의 하향추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거보다 최근들어 부정도축이 급속히 성행된다고 가정하면 도축율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바 이 경우 부정도축두수는 도축실적에서는 빠지지만 년말두수는 줄어들도록하여 앞부분에서 설명한 송아지생산 추정두수를 감소시켜 번식율은 낮추어야만 하는데 최근들어 번식율이 급속히 상승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이 가정이 틀렸거나 실제 번식율이 계산치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암소비육이 점점 더 성행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암소도축두수가 늘어나고 암소도축율이 증가하며 도축두수중 암소점유율이 높아져야만 하는데 '89년이후 어느것 하나도 이와같은 경향

을 보이지않고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육된 암소 모두가 부정 도축된다고 한다면 옳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 말에 동의할 축산인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 3.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양한 번식관련지표들이 증식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후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80년대 초반과 같은 급속한 증식을 어렵게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이유는 당시와 같은 소입식자금 방출, 외국소 도입, 암소 도축제한 등의 정부시책이 없고, 암소값이 숫소값을 상회하는 등의 입식 및 사육과열분위기가 없기 때문이다.

3월 가축통계가 발표된후 4월과 5월초에 충북, 전북 및 경남·북 지역에 출장하여 일부 양축가 및 축산관계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현재의 소값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금후의 사육두수 변동에 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번식농가는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며 비육농가에서는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건의사항중에는 소 입식, 축사 건축, 사육비용 등에 대한 자금 지원요구가 많았는바 이와 같은 제반 현상들을 감안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한우사육두수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굳히게 되었다. 소수의견으로는 암소 도축제한 부활과 외국소 도입을 건의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필자는 현재와 같이 번식관련지표들이 증식추세를 지속하고 있는한 암소 도축제한과 외국소 도입은 물론 소 입식자금방출 등 사육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시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한우 사육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켜 쇠고기 수입량을 크게 늘리므로써 통상마찰을 줄이

고,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계산된 술책이라는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바와같이 많은 선배 축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40년간 6차에 걸쳐 소값주기가 있어왔고 특히 제 6 차의 소값주기에서도 초창기에 소 입식자금 지원, 외국소 도입 등 증식확대 요구가 매우 많았으며, 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가 어떠한가는 우리 축산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한·미, 한·호 간의 협상에서 합의된 '90~92년도까지의 쇠고기 수입한도량 58~

66천톤은 과거 어느 년도에도 수입한바가 없는 물량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93년도 이후의 한도량도 이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축산인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약간의 과잉에도 큰폭의 가격하락을 겪어오고 있으며, 양축경영의 목적이 소득증대에 있고 단기적인 소득증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증대가 양축가 모두의 바램일진데 이와 같은 제반 상황하에서 여러분들이 정부의 축산시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다고 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책들을 결정·시행 하시겠습니까?

**<표 3> 과거 40년간 소값주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비 고
제 1 주기 ( '54~'59 )	소 값	?	?	?	?	?	?	6년
	사육두수	763	867	917	967	1,002	1,002	
	도축두수	87	103	128	142	174	186	
제 2 주기 ( '60~'64 )	소 값	?	?	?	?	?		5년
	사육두수	1,012	1,097	1,258	1,368	1,357		
	도축두수	130	136	172	227	329		
제 3 주기 ( '65~'69 )	소 값	382	400	497	636	615		5년
	사육두수	1,321	1,299	1,255	1,211	1,225		
	도축두수	280	260	254	211	217		
제 4 주기 ( '70~'75 )	소 값	677	785	833	848	658	565	6년
	사육두수	1,310	1,280	1,374	1,546	1,858	1,641	
	도축두수	283	272	219	258	325	470	
제 5 주기 ( '76~'80 )	소 값	799	952	1,175	906	751		5년
	사육두수	1,553	1,618	1,787	1,762	1,634		
	도축두수	404	329	273	452	531		
제 6 주기 ( '81~'86 )	소 값	979	1,277	1,612	1,217	825	695	6년
	사육두수	1,506	1,754	2,215	2,652	2,944	2,807	
	도축두수	389	303	317	458	746	1,086	
제 7 주기 ( '87~? )	소 값	741	1048	1,395				
	사육두수	2,386	2,039	2,051				
	도축두수	1,005	852	567				

주) 소값 : 체중 350kg 암소기준, '85불변가격      사육두수 : 한육우+젖소